4조원 광주시금고 광주·국민·농협 '3파전'

〈광주은행〉 〈국민은행〉

접수 마감결과 3개 은행 제안서 제출 … 다음달 결정

9~12명 심의위 구성 조만간 세부 배점표 확정키로

올해 연말 새롭게 선정될 4조원대 광주시금고 유치전이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광주시가 지난 4일 시금고 신청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현재 일반회계 1금고를 맡고 있는 광주은행, 특별회계 2금고를 맡는 국민은행, 그리고 농협 등 3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애초 시금고 지정 설명회에 참석했던 KEB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12명 규모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심의위원은 관련 단체에 복수추천을 의뢰해 시의회 추천 시의원 2명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 업무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와 시청 3급 이상 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심의위원을 선정하되 과반을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2012년에는 10명이 심의위원이 맡았다.

광주시는 조만간 내부방침을 통해 세부적인 배점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한 선정 기준이 매우 구체적인 만큼 세부적인 평가방법 등의 공개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배점이 5점인 경우 1위 기관이 5점, 다음이 4점, 3점 등 순위별 평가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시금고 지정을 앞두고 일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을 변경하는 '광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배점 기준 등의 변경에 따라 금융기관별 유·불리가 적지 않은 만큼 상당한 잡음이 있었다.

광주시는 다음달 중 금고를 확정하고, 선정 이후 심의위원 비공개를 전제로 은행별 점수 등도 공개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정 통지 20일 안에 약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올해 예산 규모에 비춰볼 때 1금고 일반회계는 4조2900억원, 2금고 특별회계는 1240억원으로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맨 오른쪽)이 지난 4일 오전 인도 마힌드라 그룹을 방문해 아난드 그룹 회장 등 임직원과 자동차 분야 투자 및 개발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인도 마힌드라 그룹 "전기차 공장 광주 최우선 고려"

윤장현시장, 아난드 회장 면담

인도를 방문 중인 윤장현 광주시장이 인도 마힌드라 그룹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광주시의 친환경자동차 육성정책을 소개하고 양 측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마힌드라 그룹은 이 자리에서 향후 전기차 생산공장을 한국에 건립할 경우 광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지난 2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 뭄바이의 마힌드라 그룹을 방문해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 파완 쿠마 고엔카 자동차·농기계사업부 수석사장(쌍용자동차 이사회 의장), 울하스 야곱 IT분야 사장 등 경영진과 만났다.

지난 4일 오전에는 뭄바이 칸디발리에 있는 마힌드라 공장을 직접 찾아 고엔카 수석사장으로부터 마힌드라 그룹의 자동차부분 투자 및 개발계획 등을 들었다.

고엔카 사장은 이 자리에서 "향후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공장을 세운다면 광주를 가장 먼저 고려하겠다"며 투자 의향을 밝혔다.

1945년 창립한 마힌드라 그룹은 자동차·항공우주·방위산업·레저·금융·정보통신 등 10개 사업부분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178억달러의 매출액과 20만여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인도의 글로벌 기업으로 2011년 한국 쌍용차를 인수해 국내에도 많이 알려졌다.

한편, 윤 시장은 미국 하버드대학과 보스턴대, 중국 칭화대에 이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강단에 선다. 윤 시장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초청을 받아 7일 아시아중동연구단과대에서 '아시아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한 광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윤 시장은 이날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담은 광주정신이 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윤 시장은 9일과 10일에는 독일을 방문, 라이프치히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지원

8개 광역시·도 중 최다

쌀 직불금과는 별개

전남도는 올해 가뭄과 수발아에 이어 수확기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570억 원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벼 재배 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는 8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쌀 직불금과 별개로 전남도가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지원 기준 면적은 0.1ha(300평) 이상부터 최대 2ha(6000평)까지다.

전남지역 벼 재배 면적은 16만6000ha로 지난해(17만ha)보다 2.2%(3741ha), 농가 인구는 31만9000여 명으로 지난해(35만6000여 명)보다 10%(3만7000여 명) 줄어드는 등 모두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벼 재배 면적과 농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금은 상향되고 있다. 2011년 농가당 39만원, ha당 44만원을 지급했고, 2015년 농가당 51만원, ha당 57만원으로 증가했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전남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쌀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지난 2001년 18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난 2015년까지 모두 6270억원을 지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이낙연 지사, 박정희 기념사업추진위 부위원장 사퇴

"추진위원회 참여 않겠다"

서울시 "박정희 동상 안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광화문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다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참여한 이낙연 전남지사 등 일부 인사들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일부 보수진영에서 추진 방침을 밝힌 광화문광장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과 관련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9년 조성된 이래 새로운 고정 조형물 설치는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다"며 "동상이라는 것은 광화문광장의 상징성과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논의돼야 하므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출범식에서 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범국민 모금운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혀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다.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구설수에 오른 이낙연 전남지사가 부위원장직을 내놓고 불참 의사를 전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정홍원(전 국무총리) 위원장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알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김관용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과 함께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연합뉴스

무안공항~日 기타큐슈 노선 내일 첫 운항

부정기 노선 … 화·금·일 주 3회

무안공항에서 기타큐슈로 가는 부정기 노선(정기성 전세기)이 8일부터 첫 운항에 들어간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기타큐슈 부정기 노선은 앞으로 4개월 동안 화·금·일 주 3회 운항된다. 소요 시간은 1시간10분 정도다. 기종은 보잉 737(185석)로 국토교통부의 항공사 노선 배정이 완료됐다.

노선을 운영하는 티웨이항공사 측은 "부정기 노선을 우선 운항해 항공 수요가 확보되면 정기 노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대한항공과 오사카 등 3개 노선, 티웨이항공사와 대만을 연결하는 부정기 노선 운항도 현재 협의 중이다.

남창규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은 중국 노선 의존도가 비교적 높았으나, 기타큐슈를 시작으로 일본은 물론 동남아까지 노선을 확대해 안정적 항공수요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9월 말 현재까지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국내외 이용객은 25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만여 명)에 비해 7.0%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는 지난해 이용객 31만2000여명을 넘어 2007년 개항 이래 올해 처음으로 35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힐러리-트럼프 오차범위 내 접전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직격탄

한때 역전 … 경합주 잡기 총력

미국 대선이 지난 5일(현지시간)로 꼭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에 직격탄을 맞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에게 역전까지 허용했다가 다시 소폭 앞서나가고 있지만,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 아직 승패를 단언하기 힘든 형국이다.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공개한 추적 여론조사(10월31일~11월3일·1419명) 결과에 따르면 클린턴은 47%의 지지율을 기록해 43%를 얻은 트럼프에 4%포인트 앞섰다. 전날 3%포인트(47%대 44%) 격차와 비교하면 1%포인트 더 벌어졌다.

트럼프로부터 이탈한 1% 포인트는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가 흡수했다. 존슨의 지지율은 이전 3%에서 4%로 올랐다. 트럼프는 최근 46%대 45%로 힐러리를 처음 역전하며 맹추격했으나 이 두 매체의 이번 여론조사로만 보면 그 기세가 다소 약해진 모습이다.

클린턴의 4%포인트 리드는 이 두 매체의 10월 중순 조사 때, 그리고 201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에 앞섰던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WP는 설명했다.

클린턴의 지지율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흑인 표 구애' 전략이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턴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062)234-3222 Fax.(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1. 무안→일본(기타큐슈, 오사카/북해도) 직항 전세기
무안공항출발! 초특가 규슈여행
548,000원부터~
출발일 : 2016.12.16~2017.2.26/3박4일 ※설연휴 별도문의
[품격]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품격]남큐슈 미야자키/가고시마 998,000~

출발일 : 2017.1.27~2017.2.5/3박4일(단 4회) ※설연휴 별도문의
[품격]오사카/나라/교토/고베 1,168,000~
[고품격]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298,000~
[고품격]★오사카/북해도 설국의나라★ 1,498,000~
광주↔무안 왕복 버스 선착순 40명(2017년 1월 12일까지)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1,398,000원부터~
출발일 :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팁
※공통불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클럽 중식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품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품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한벌제품★
한벌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 편도 79,000원부터~
무안↔오사카 :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동다 2003-1호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없음(단,기사/가이드봉사료,선택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곳 조이투어